

그럼, 16 초엔 어떨까? BUT WHAT ABOUT THE 16TH SECOND?

By Robert J. Tamasy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의 졸업 연설 영상을 최근에 보게 되었다. 수년간의 노력과 희생 끝에 수석 졸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느꼈던 쾌감에 관해 그는 이야기했다.

그러나 뒤이어 그는 매우 냉철하게 지적했다. 그 행복과 희열은 '딱 15 초' 뿐이었다고 말이다. 불꽃놀이를 할 때와 같은 엄청난 희열을 느낄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수상 후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는 그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감정은 순식간에 솟구친 후 곧바로 사라졌고, 이 모든 것은 약 15 초 사이에 벌어졌다.

그 때문에 그는 교우들을 향해 목표와 꿈을 정하되,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말라며 도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6 초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학생 대표가 한 이 말은 수년 전 페기 리의 "그게 전부인가? (Is That All There Is?)"라는 추억의 노래를 연상케 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쏟아내지만, 막상 그것을 성취한 후에는 상상했던 것만큼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 대부분에게 고등학교 시절이란 머나먼 추억일 것이다. 대학을 다녔다면, 그 시절 또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 대신 아마도 지금쯤 각자의 일터에서 당일, 주간, 연간, 혹은 일생의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만(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취하면 난 행복할 거야'라고 합리화한다. 목표 달성에 치우치다 보니 관계, 건강, 운동, 순간순간의 감사와 같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게 된다.

Recently I watched a video of a high school valedictorian's graduation speech to his class. He talked about the elation he felt when, after years of hard work and personal sacrifice, he had achieved his goal of being named valedictorian, the number one-ranked student in his class.

But then he made a sobering observation: That feeling of euphoria lasted "about 15 seconds." He said he had expected to feel much more – fireworks maybe, or much more excitement. But no. When the reality of receiving the academic honor had settled in, he felt "nothing." As quickly as the surge of emotion came, the feelings subsided. Within about 15 seconds.

So he cautioned his fellow students to set goals and dreams, but keep them in perspective. He warned, "Have no regrets in the 16th second." What the scholar said was reminiscent of the haunting Peggy Lee song of years ago, "Is That All There Is?" We can pour our time, talent and energy into accomplishing a certain objective, only to find that after it has been achieved, it is not as fulfilling as we had imagined.

For most, if not all, of us, high school is a distant memory. As is college, if we attended. Instead, you are probably in the midst of a career and you set goals, both professional and personal – some for that day, others for the week, this year, for your entire career. "When I achieve that (whatever it is), then I will be happy," we reason. We forgo other priorities in our lives – relationships, health and fitness, the ability to enjoy and appreciate the moment. Because our goals and objectives are all that matter.

그 졸업생 대표가 말했듯, 그러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게 되고 그 성취감의 벽찬 희열과 만족감은 약 15 초간 지속된다. 그리곤 바로 16 초가 다가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게 다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따라서 졸업생 대표가 말한, "16 초가 되는 순간 후회하지 말라"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이는 단지 21 세기 현시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듯,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

영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시적인 것을 위해 애쓰는가?

오늘날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19-21)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어느 현명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딱 두 가지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다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8)

지금의 일시적인 삶은 곧 끝날 것이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안개'라고 말하고 있다(야고보서 4:14).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막상 영생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6)

Then, as the valedictorian noted, we hit the target. We reach our goal. And for about 15 seconds, we revel in euphoria, the overwhelming satisfaction of accomplishment. But then comes the 16th second, and we find ourselves wondering, "That's it? Is that all there is?"

So we would be wise to heed the advice of the stellar student: "Have no regrets in the 16th second." This is not a 21st century problem. It is one that existed thousands of years ago, as we learn in studying the Bible. We find different words, but the same message – do not focus on the wrong things.

Why strive for the temporary when we can gain the eternal?

What do you have today, what are you working for, that you can take with you when you die?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can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19-21).*

Concentrate on those things that will endure.

A wise person once said, "When all is said and done, only two things will last: the Word of God, and people." If that is true, it is unwise to devote ourselves to other things, at the expense of a growing relationship with God, as well as relationships with people we love.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Isaiah 40:8)*

Realize this temporal life will soon be over.

The Scriptures talk about our earthly lives as "a vapor" (James 4:14). All too quickly, they are gone. But then we confront eternity – what will happen then?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Mark 8:36).*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수석 졸업생 대표가 발견했듯,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그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었나요?

Have you ever dedicated huge amounts of time and energy toward achieving a specific goal, only to discover the happiness of accomplishing it fades quickly – as the high school valedictorian discovered? What was that experience like for you?

2. '승리의 스릴'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낙심 또는 공허함으로 남게 될까요?

Why do you think “the thrill of victory” can be so fleeting, often being replaced with feelings of discouragement or emptiness?

3. 만족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도전적인 목표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hat are some of the consequences – negative results – of becoming totally immersed in a challenging goal or objective, beyond discovering that the sense of satisfaction can fade surprisingly quickly?

4.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적 혹은 한시적 시각보다 영원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관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What in your view, does it mean to maintain an eternal perspective in all we do,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rather than an earthly or temporal perspective? How would you evaluate yourself in this regard?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욥기 7:7; 시편 39:4-6, 144:4; 잠언 27:1; 전도서 1:2-4, 2:1-11,21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욥 7: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 (시 39:4-6)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 (시 144:4)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 (잠 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 (전 1:2-4)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 (전 2:1-11)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솔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 2:21)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